

keri
경제동향과 전망

1997년 4월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동향과 전망

1997년 4월

동향과 전망

- 제 1장 국내경제
- 제 2장 해외경제
- 제 3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부록

- 경제정책정보
- 주요경제통계

동향과 전망

제 1장 국내경제

1. '96년 4분기 및 연간실적
2. 최근 동향 및 '97년 전망

제 2장 해외경제

1. 국제환율
2. 국제금리
3. 국제원자재가격

제 3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1. 최근 경제추이의 판단 및 향후 전망
2. 향후 경제운영방향

부 록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제1장 국내경제

1. '96년 4분기 및 연간실적

재고증감변동분을 제외한 '96년 성장률은 6.2%로 잠재성장률 하회

- 우리경제는 지난 4/4분기 중 농림어업의 호조와 정부부문을 포함한 소비지출의 소폭 반등으로 7.2%(이하 GDP기준)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나 3분기까지의 지속적인 성장둔화를 반영함으로써 연간성장률은 '95년(8.9%)보다 1.8%p 낮아진 7.1%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연간 경제성장률 7.1%는 잠재성장률수준으로 경기수축국면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고증가의 변동분을 제외할 경우 '96년 성장률은 6.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즉, '96년중 재고증가의 변동분('95년 재고증가대비 '96년 재고증가의 변동분은 '90년 불변가격기준으로 2조 2,358억원임)에 의한 성장기여율이 0.87%p에 달했음.
- 또한 4/4분기중 예상(지난호 GDP성장률 전망치 '96년 4/4분기 6.5%, '96년간 6.9%)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농수산업의 호조와 수요면에서 소비증가세가 전분기보다 빨라진 가운데 수출이 물량면에서 크게(18.5%) 늘어난 결과임.
- 생산면에서는 '96년중 제조업이 중화학부문의 성장둔화와 경공업부문의 부진으로 지난 두 해('94년 10.5%, '95년 10.8%)보다 크게 낮은 7.4% 증가에 머물렀으나, 서비스업은 물류 및 통신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투자 증가에 따른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각각 10% 내외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임업과 어업이 호전되고 미곡생산이 호조를 보인 농림어업부문도 '96년보다 높은 6.2%의 성장을 이룩하였음.

생산면에서 제조업의 부진이, 수요면에서는 설비투자의 부진이 경기수축주도

- '95년 3/4분기까지 4분기 동안 9.8%의 고성장을 지속한 우리경제는 그간의 투자증가로 인한 생산능력의 빠른 증가, 엔화가치의 약세전환에 따른 수출증가세 및 설비투자증가세의 둔화 등이 교차함으로써 '95년 4/4분기 이후 재고증가가 누적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제조업 생산부문이 급격히 위축되었음. 특히 '95

년 1/4분기 중 9.0%에 달했던 민간소비지출이 '95년 4/4분기 이후 6%대로 급격히 낮아지는 등 수요부문의 둔화세도 현저해지고 있음.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여전히 컸으나, 민간소비위축은 예상보다 빨라 성장 둔화

○ 달러강세에 따라 원/달러환율은 '95년 하반기 이후 '96년 말까지 약 11% 절하되었으나 가속적인 엔/달러 환율의 절하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적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둔화현상이 가속화되었음. 지난 4/4분기중 수출은 '95년 4분기중 부진했던 실적에 대한 반등효과로 인하여 전분기의 감소세에서 벗어나고 물량기준으로 전년동기비 18.5%에 달했으나 연중의 둔화추세를 반영, 연간으로는 3.7%(달러표시 통관기준)의 신장세(물량기준 14.1%)에 그쳤음.

- 물량면에서 볼 때, 수출은 '96년중에도 설비투자과 소비증가의 둔화추세 속에서 여전히 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부문이었음.

- 수출과 함께 경기확장국면을 주도했던 설비투자는 투자순환주기상 '95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순환이 정점을 지나 둔화추이가 지속되어 왔으나 4/4분기중 운수장비투자증가(17.0%)에 힘입어 설비투자증가는 13.7%에 달했음. 이에 따라 '96년 연간 설비투자증가율은 '95년(15.8%)의 절반수준인 8.2%로 집계되었음.

- 지난 '95년중 비주거용건물건설을 중심으로 8.7%의 건실한 성장세를 보인 건설투자는 '96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을 비롯한 여타 건설부문의 부진으로 4분기중 2.8%신장에 그치고 연간으로도 6.3%에 그쳤음.

- 민간소비증가세는 '95년 1/4분기를 정점으로 둔화추이를 지속하여 '96년 하반기에는 6%대로 낮아졌음. 이는 GDP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등에 따라 '95년중 크게 둔화되었던 정부소비지출(1.0%)은 '96년중 인건비와 물건비 등을 중심으로 7.1%나 증가하였으나 총소비지출은 지난해 7.2% 증가한데 이어 '95년에는 6.9% 증가에 그쳤음. 즉, 경기확장기이후 민간소비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오버슈팅현상(Overshooting)이 이번에는 단기 소폭에 그침으로써 경기수축국면에서 경기지지를 위한 완충역할이 매우 제한적임.

교역조건악화와 가격경쟁력약화로 경상수지적자 GDP의 4.9%에 달해

- 성장률하락과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중 경상수지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됨으로써 사상 최대규모인 237억 1,600만불에 달해 GDP의 4.9%에 달하였음. 이는 교역조건악화와 가격경쟁력저하로 무역수지적자가 152억 7,700만불에 달하고 무역외 및 이전수지의 적자규모도 '95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 전체 경상적자의 1/3을 차지한 데에 따른 것임.
- 연중 통관기준 수출은 9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전년비 3.7%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297.15억불에 그친 반면 수입은 11.3%가 증가한 1,503.39억불을 기록함으로써 '91년 이후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음.
- 수입의 경우, 국내경기 둔화를 반영하여 자본재수입은 한자리 수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으나, 소비재 수입은 수입자유화 확대와 유통시장 전면개방,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고급화, 경쟁력상실 품목의 저가제품 수입급증 등으로 '96년중에도 20%대의 높은 신장세가 지속됨으로써 연간수입은 1,435.3억불에 달했음. 이에 따라 연간 수입증가율은 두자리 수에 달하였음.
- 한편, 경상수지에 장단기자본수지를 합한 종합수지는 '9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57.4억불 적자로 반전되었음.

농수산물과 수입물가의 안정으로 물가목표 달성

- 국내물가는 원유를 제외한 해외원자재가격이 '96년중 안정세를 보이고 연중 농수산물 작황도 호조를 보임으로써 '95년 5월(생산자물가 5.2%, 소비자물가 5.1%) 이후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이를 지속하여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정부의 당초 목표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었음.
- 일부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4분기중에도 농산물가격의 안정에 힘입어 하향안정세가 지속됨으로써 생산자물가는 연말기준 전년동기비 3.5%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4.5% 수준에서 안정되었으며 연평균으로도 상승압력이 높았던 생산자물가가 2.7%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5.0%에 그쳐 안정추세를 보였음.
- 한편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5% 이내로 안정된 반면 연중 GDP디플레이터는 '95년(5.4%)보다 크게 낮은 3.4%에 그쳤음. 이는 임금비중이 큰 서비스

부문의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았으나 수출품목의 단가하락과 공산품가격의 안정에 따른 것임.

하반기 이후 금리상승추이 지속

○ '96년 4~5월중 회사채수익률은 11.0% 그리고 콜금리는 9.5%의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음. 이후 시중금리는 다소 기복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4분기중 12.6%에 달하였음.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지급준비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금리상승압력이 작용했던 이유는,

- 첫째, 최근의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운전자금수요가 증가하였음. 주로 금융기관의 민간신용부문이 주요 통화공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둘째, 신탁제도개편에 따라 제2금융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 신탁제도개편이후 신탁자금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은행, 신탁계정 및 투신사의 자금 운용규모가 축소되었고 이와 더불어 증시침체로 인한 증권사의 콜자금차입 및 CP발행이 확대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1, 2금융권간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제2금융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음.
- 셋째,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함으로써 자금가수요가 간헐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시중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음.

2. 최근 동향 및 '97년 전망

'97년중 본격적인 경기수축국면 지속으로 연간성장을 5.1% 예상

○'96년 4/4분기중 농수산업부문의 풍작과 정부소비의 증가, 전년동기중 저성장예 대한 반동으로 GDP성장률이 7.2%로 반등하였으나 '97년 1분기중에는 수출이 다시 감소하고 노동법 재개정과정에서의 파업과 한보사태를 비롯한 정치사회적인 불안정요인이 겹침. 이에 따라 수출부진속에 설비투자와 소비를 포함한 내수마저 위축현상을 보임으로써 '97년 상반기중 성장률은 5% 이하(4.7%)로 예상된다. 외부적으로 '엔약세-달러강세'기조 속에서 우리경제의 경기국면전환을 위한 단기정책수단이 제한된 국내여건이 작용함으로써 금번 경기수축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됨.

- 민간소비는 '96년 하반기 이후 내수용소비재와 도소매판매등이 '97년1/4분기 까지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인 부진이 예상된다. 과거 민간 소비지출부문은 경기후행적 특성으로 급속한 경기하강을 제어하는 완충역할을 하여 왔으나 이번 경기하강국면에 있어서는 '96년 3/4분기중 이미 민간소비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밀돌았으며 '97년중에도 이같은 추이의 지속이 전망됨으로써 민간소비지출증가에 의한 경기지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96년중 도시가계의 명목소득은 전년비 12.6%가 증가한 반면 명목소비지출은 13.4%가 증가하여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하였으나 분기별 소비증가추이는 1/4부터 4/4분기까지 14.7%, 17.2% 3/4분기 11.1% 4/4분기 10.9%로 하반기이후 급격한 둔화추이를 보임으로써 경기하강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가계의 소비위축에 따라 도시가계저축율은 '96년 상반기중 26.1%에서 하반기에는 33% 수준으로 높아짐.

'98년 4/4분기를 저점으로 한 기술적 경기반등 이후에도 수요회복부진으로 저성장국면 지속 예상

○'97년중에도 지난번 확장기를 주도했던 수출과 설비투자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되지 않고 민간소비의 활기도 '96년 하반기 이후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그리고'97년중에는 재고조정과 함께 가동률 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조정이 마무리되고 원화절하와 엔화약세완화의 효과로 제한적이거나 수출회복이 예상되는 '98년 1/4분기 이후에야 완만한 경기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은 전망은 '97년 3/4분기 이후 수출증가율이 10%대를 회복하고 재고조정의 효과도 하반기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임. 제한적이거나 수출회복이 예상되는 것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이외에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중기적 호황국면을 지속하고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주력품목들의 국제시황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설비투자 역시 '95년 4/4분기 이후 현저해진 기업들의 투자조정과정이 '97년 4/4분기까지 2년여에 걸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수출여건이나 기업의 투자심리도 '98년 이후에나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경우, 7~9년의 확장기와 2~3년의 조정기를 거쳐왔는데 이미 '92~'93년에 걸친 순환적 조정기를 겪은 바 있어 올해처럼 급격한 수출감소요인이 없는 한, 재고조정후의 설비가동율이 70%대로 떨어지는 '97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

단기적으로 수출은 가격경쟁력 변화에 의존

- 그간의 경제체질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경제의 경직적인 구조적 취약성이 경기침체로 부터의 자율적인 반등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능한 경기국면전환은 해외수요에 부응하는 수출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 수출신장은 가격경쟁력의 제고 정도에 달려있음.
- 경쟁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물류비, 금융비용, 지대와 높은 행정규제비용 등이 이번 경기수축기 동안에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기업은 수출상품의 질적 경쟁력 제고보다는 환율 등 가격경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97년 상반기중 재고 및 가동률 조정국면 가속화

- 지난해 20%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던 재고는 '96년 4/4분기부터 완만하나마 재고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97년 들어 1, 2월중 생산과 출하증가세가 5% 수준으로 둔화된 반면 재고증가세는 15%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2/4분기이후 재고조정을 위한 생산 및 출하의 둔화추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 '95년 3/4분기 이후 급증한 재고수준은 '96년 4/4분기 이후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올 1, 2월중에도 두자리 수(15.8%)의 재고 증가를 기록함으로써 제조업의 재고조정이 '97년 상반기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생산능력의 꾸준한 증가가 이어지는 상반기중 제조업설비가동률은 70% 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심리적 위축으로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둔화 가속

- 지난 4/4분기에 다소 높은 증가세(13.7%)를 나타냈던 설비투자는 민간소비증가세는 12월이후 파업과 대기업들의 부도사태 그리고 정국불안정 등의 심리적 위축요인으로 인하여 상반기중 소극적으로 반전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수준을 밑돈 것으로 추정되고 전반적인 민간소비증가세도 '95년 1분기 이후의 둔화추세가 지속되어 '95년중 8.3%, '96년 하반기중 6.4%보다 낮은 4%대의 증가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상반기중 엔화약세에 따른 원화절상 효과 제약으로 수출회복지연

- 수요면에서는 '97년 상반기중에도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반면 1/4분기중 급속했던 원화절하추이는 2/4분기 이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1/4분기중 감소세를 나타냈던 수출의 급증세가 예상되지 않음.
- 수출의 경우, '96년 하반기중 감소한 데에 이어 올 1/4분기중에도 전년동기대비 5.5%가 감소하였으나 '96년 2/4분기 이후 1년간 약 14%의 원/달러환율절하가 있었으며 일부 수출품목의 해외시황 개선과 수출단가의 제한적인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2/4분기 이후 증가세로의 반전이 예상됨.
- 이같은 수출부진의 지속은 '95년 하반기 이후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엔화 가치가 '97년중에도 달러강세로 120엔/\$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경제의

성장호조로 교역규모는 신장되겠으나 국내수출상품의 주요 선진국시장내 가격경쟁력취약으로 수출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임.

-이같은 수출전망은 '97년 평균 원/달러환율을 900원/\$, 즉 '96년대비 약 12.5%의 절하를 가정한 결과임.

기업투자심리 위축으로 '97년중 설비투자 감소세 예상

○'95년 하반기 이후 수축기로 접어든 설비투자는 '95년 15.8%, '96년 8.2%에 이어 올들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됨으로써 '97년중 지난해에 비해 투자절대액이 감소할(-3.9%) 것으로 전망됨. 이같은 전망은 생산증가세 둔화속의 높은 재고증가 그리고 빠른 생산능력증가 추세 속에 설비가동률의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경기순환에 비해 설비투자순환은 변동폭이 큰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투자의 선행성에 비추어 경기수축기가 내년 이후로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됨.

'97년중에도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지속

○건설투자는 '96년 하반기중 건물건설부문이 부진함으로써 예상보다 낮은 연간 6.3% 신장에 그친 데 이어 '97년중에도 3%대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건축재정의 편성방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포함한 재정지출감축이 예상되고 건설경기주기상 상승국면으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주택건설 부문은 누적된 미분양주택의 규모가 9만호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중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임.

- 건설업체부도는 '90년 3개(0.3%), '91년 9개(1.4%), '92년 23개, '93년 49개(3.0%), '94년 50개(1.9%), '95년 145개사(4.9%), '96년에는 196개사(6.6%)로 급속히 증가(()안은 건설업계 부도율)함.

주택건설실적추이

	1993	1994	1995	1996
천호	695	623	619	592

자료: 건설교통부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1/4분기중 물가안정세 유지하였으나 누적적인
물가압력의 팽창으로 제한적인 물가상승세 예상

- '97년 1분기중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보여 각각 4.9%, 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물가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다각적인 물가안정노력과 축산물가격의 안정 등에 따른 것이나 여전히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폭이 크고 환율상승에 따른 에너지가격과 일부 공산품의 가격상승마저 예상되고 있어 연중 물가상승압력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97년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4.7%)가 '95년보다 다소 높고 생산자물가(3.2%)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 전반적으로는 '97년중 물가는 경기하강과 임금상승둔화 그리고 민간소비지출둔화 등이 작용함으로써 수요부문의 상승압력은 낮아질 전망이나 현재 물가상승을 주도하고있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외에 12월의 대통령선거 등의 영향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97년도 분기별 경제전망

(단위: 국제수지부문은 億弗, 기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국내총생산	7.8	6.9	6.6	7.2	7.1	4.5	4.8	5.0
제조업	7.7	6.5	7.0	8.4	7.4	4.0	4.5	5.0
총 소비	7.5	7.2	6.2	6.9	6.9	4.3	4.5	4.4
민간소비	7.7	7.4	6.2	6.5	6.9	4.3	4.6	5.0
고정자본형성	8.2	5.2	8.0	7.2	7.1	-0.2	0.4	0.0
설비투자	4.9	4.6	9.3	13.7	8.2	-3.3	-4.0	-3.0
건설투자	11.2	5.6	7.1	2.8	6.3	2.5	3.8	4.0
생산자물가	3.1	1.8	2.3	3.5	2.7	3.6	4.0	3.0
소비자물가	4.9	5.0	5.2	4.9	5.0	4.7	4.4	5.0
경 상 수 지	-46.4	-52.4	-74.8	-63.6	-237.2	-77.7	-63.0	-41.0
무 역 수 지	-25.5	-30.9	-55.9	-40.4	-152.8	-56.3	-43.2	-22.0
상품수출	315.0	325.5	297.2	344.8	1,282.5	298.2	325.6	341.0
증가율(%)	20.5	3.9	-6.5	1.5	4.1	-5.3	0.0	15.0
상품수입	340.5	356.4	353.2	385.2	1,435.3	354.6	368.8	363.0
증가율(%)	18.7	7.8	8.4	14.7	12.2	4.1	3.5	3.0
무역외수지 와 순이전수지(외)	-20.9	-21.5	-18.8	-23.2	-84.4	-21.4	-19.9	-19.0
원화 환율 (외)	782.7	810.6	821.2	844.2		892.8	910.1	900.0
엔화 환율 (외)	106.4	109.9	111.4	116.0		123.8	126.0	123.0
세계교역단가(외)	-1.0	-2.0	-2.3	-2.4	-1.9	-0.5	-0.7	0.0
세계교역량 (외)	4.0	6.6	6.2	4.9	5.4	9.8	6.4	6.0
총 통 화	14.0	15.2	17.4	18.3	16.3	19.4	18.9	18.0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민간부문의 투자심리위축으로 경기수축기 장기화 우려

-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내경제는 '97년 4/4분기 이후에야 비로소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경기수축기간이 과거의 평균기간인 19개월보다 긴 27개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같은 계량적인 예측결과에 비하여 실제 기업의 투자심리는 더욱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전경련과 산업은행이 '96년 11월 각각 조사한 '97년도 대기업의 투자계획에 의하면, 이들 대기업의 투자계획상 명목 투자증가율은 0.6% 내외로 나타났다. 또한 통산부가 올 2월중 발표한 200대 주요기업투자계획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기업들의 설비투자계획은 지난해 실적대비 -2.1%(명목금액기준)의 설비투자감소가 예상됨. 이같은 조사결과들은 민간기업들의 경기심리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음을 반영함.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계획)
설비투자증가율	47.0%	40.4%	21.0%	-2.1%

자료: 통산부 2/12

'96년 2월 104.0을 정점으로 한 동행지수순환변동치, '97년 2/4분기중 100 이하로 하락 예상

- '96년 4/4분기 이후 경기수축과정은 비교적 빨리 진행되었으나 4/4분기중 국민계정이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포함한 경가지표들은 대체로 상승함으로써 경기하락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4/4분기중 경가지수의 상승은 전년동기의 급락에 대한 지표상 반등이 기여한 반면 생산, 수출, 설비투자, 재고수준 등 실물지표들은 여전히 악화추이를 보였음. '97년 1/4분기중에도 실물부문지표들의 지수하락과 함께 경가지수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 향후 2/4분기 이내에 본격적인 경기확장국면으로의 이행은 예상되지 않음.

해외금리는 상승, 국내금리는 안정추이 예상

- '97년중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운전자금수요가 다소 진정되고 투자자금수요도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96년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0.5%p 내외의 하락이 예상된다.

○ 국제금리는 '97년중 전반적인 상승세가 예상됨. 미국은 경기호조와 인플레이제제를 위한 연준의 금리인상가능성, 일본은 하반기 이후 소비세인상에 따른 물가과 급역제와 본격적인 경기회복시 인상가능성, 독일은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시 상승 가능성이 있음.

- '96년 12월 12.6%까지 상승했던 시중실세금리(회사채수익률)는 통화당국의 신축적인 통화공급에 따라 다소 안정되고 있음. 금융시장내의 불안정요인과 대기업의 잠재부도위험 등 최근의 금리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수출 및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됨으로써 금리인하요인을 형성할 것임. 수출증가를 비롯한 경기회복의 가시화, 대통령선거 등 누적된 물가압력을 촉발시키거나 신축적으로 공급된 통화의 유통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연말에는 다시 상승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 추가적인 금리하락요인으로서는 지급준비율의 추가하락에 따른 은행금융기관의 자금여력 확대효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추가확대와 외국인의 무보증 중소기업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확대, 해외증권발행의 허용, 상업차관 및 현금차관 대상기업의 확대 등이 있음.

- 그러나 금년과 같이 지준율인하로 인한 통화공급요인을 통한증권발행 등의 방법으로 환수할 경우, 또는 예정된 자본자유화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금리하락효과는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임.

엔화약세는 무역흑자확대와 경기회복으로 하반기 이후 둔화전망

○ '96년중 일본의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5,660억불로 전년대비 32.4%가 감소하였으며 대미무역수지도 2,980억불로 16.5%가 줄었으나 '96년중 엔약세에 따라 최근으로 올수록 다시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97년 4월 현재 엔/달러환율은 126엔/\$을 상회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의 엔약세에 대한 용인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음.

○ 반면 일본의 도매물가는 '92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96년 말에는 전년대비 0.8%가 하락하였다. '96년 12월중 엔화표시 수출입단가는 모두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자동차구입 등 민간소비지출이 다소 늘고 있으며 소비세율인하에 따른 선취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성장률도 회복되고 있음.

- 일본의 실업률은 '96년 5~6월에 실업통계가 작성된 '53년 이래 가장 높은

3.5%를 기록한 이후 3.3~3.4%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단기간내에 호전될 전망은 희박함.

- 따라서 달러화는 미국금리의 상승이 예견되는 상반기중 강세를 보인 후 일본과 독일의 경기가 회복되고 이들 국가의 금리가 상승할 하반기 이후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원/달러환율은 2/4분기중 추가절하압력있으나 연말에는 890원/\$ 내외 수준 예상

-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외화유입증가로 '94년 초 이래 절상추세가 지속됨으로써 '95년 7월말 756원/\$을 기록한 뒤, 달러의 강세와 경상적자의 확대에 따라 '95년 말 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원/달러환율은 '96년 말 844원/\$ 그리고 '97년 4월 중 890원/\$대에 달하였음. 2/4분기중 추가적인 절하압력이 상존하고 있으나 하반기중 미국 달러화 강세의 이완 가능성, 국내경기하강속도 완화에 따른 외화유입증가와 수출회복세 가능성 등으로 '97년 4/4분기중 원/달러환율은 절상추세를 나타내어 890원/\$ 내외 수준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 절하압력은 지난해 중반 이후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의 강세, 우리의 경상수지적자확대에 따른 달러화 결제수요의 증가 국내경기하강과 증시악화에 따른 외화유입의 둔화 그리고 원화약세를 예상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달러매입/원화매각 등임.
- '96년중 168억불의 장단기 외화자금이 유입되었으나 OECD가입 첫해인 '97년 중에는 200억불선에서 억제함으로써 환율 및 통화관리부담을 적정화할 것으로 알려짐. '97년 상반기중 외화차입신청결과에 의하면 총신청액은 올 한도 국산시설재 20억불, 외산시설재 10억불중 20.5억불에 해당하며 처음으로 허용된 대기업시설재도입용 사업차관이 2.2억불이었으며 지자체는 한도(5억불)를 3.5억불 초과하여 신청하였음.

제2장 해외경제

<표> 세계경제전망

		1996			1997		
		IMF	OECD	WEFA	IMF	OECD	WEFA
경제 성장률	전세계	3.8	-	3.2	4.1	-	3.7
	선진국	2.3	2.4	2.3	2.5	2.4	2.2
	아시아	8.0	6.1	6.3	7.5	6.2	6.6
	신흥공업국 ¹⁾						
원자재	원유가격 ²⁾	13.2	19.8	17.8	-8.7	-7.8	-0.7
교역 물량	세계교역 ³⁾	6.7	6.7	4.6	7.2	7.3	6.7
	선진국수입 ⁴⁾	5.3	5.1	3.6	5.5	6.2	3.9
	개도국수출 ⁵⁾	10.3	-	6.9	10.7	-	10.7
환율 ⁵⁾	엔/달러	-	116.0	116.0	-	114.1	113.8

주 : 1) OECD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포함

2) IMF는 브렌트, 두바이, WTI유의 평균가격, WEFA는 브렌트, 두바이, Alaska North Slope유의 평균가격, OECD는 OECD수입가격 기준

3) 수출입물량평균(WEFA는 수출물량)

4) 물량기준(WEFA는 금액)

5) 기말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1996.10),

OECD, OECD Economic Outlook(1996.12),

WEFA, World Economic Outlook(1997.2), Asia Economic Outlook(1997.2),

1. 국제환율

<표> 국제환율 추이

	1996						1997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18	
\$/SDR	1.458	1.443	1.439	1.435	1.446	1.444	1.435	1.395	1.385	1.387	1.370	
¥/\$	106.48	109.92	111.46	116.00	113.30	113.44	116.00	122.12	120.90	123.75	125.86	
DM/\$	1.475	1.523	1.526	1.556	1.514	1.538	1.556	1.639	1.690	1.675	1.711	
\$/£	1.527	1.553	1.566	1.691	1.627	1.682	1.691	1.602	1.629	1.653	1.633	

주 : 각국의 현지환율, 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연합뉴스

- 96년 12월말 미 달러화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일본의 경기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등을 반영하여 엔화 및 마르크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였음.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기호조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등으로 약세를 보였음.

- 97년 1월초 미 달러화는 96년 11월 중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시장예상보다 적은 147억달러로 발표되고 영국이 현행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하자 독일의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였음. 미국경제의 성장 및 주식시장 강세 등을 반영한 외국투자자들의 매입수요가 지속되고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 영국의 경기둔화조짐 등을 반영하여 미 달러화의 강세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1월중 계속되었음.

- 2월초 미 달러화는 일본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 독일 재무장관의 달러화 강세 지지발언 등으로 엔화 및 마르크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였으나 영국의 경기호조 지속 등으로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음.

2월 11일에 있었던 미 재무장관의 달러화 강세 지지발언,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 독일의 경기회복세 미약 및 영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둔화 등을 반영하여 2월 중순에는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소폭의 강세를 보이기도 하였음.

그러나 결산기를 앞둔 일본기업의 엔화매입 증가, 영국의 무역수지 적자감소 등으로 엔화 및 파운드화에 대해서 2월중 약세를 유지하였음.

- 3월초 미 달러화는 EMU출범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달러화 매입증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등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음.

EMU출범의 불확실성 지속, 영국의 경기호조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 무엇보다 3월말 결산을 앞둔 일본 기업의 달러화 매각세가 확대됨에 따라 미 FRB의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3월중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약세를 보였음.

3월말 미 달러화는 일본은행 총재의 저금리정책 지속 발언, 미 FRB의 금리추가인상설 확산 등으로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영국의 경기호조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발표 등으로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음.

- 미 주식시장의 부진, 미 재무장관의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우려 표명, 독일의 경기호조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발표, 영국의 금리인상 기대의 확산 등으로 미 달러화는 4월 들어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일본 통산성 장관의 달러화 강세용인 발언, EMU의 순조로운 출범에 대한 기대감 확산 등으로 4월초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임.

2. 국제금리

<표 >국제금리 추이

		1996							1997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18
미국	재할인율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25	5.50	5.50
	프라임레이트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T/B(90일)	4.93	5.02	5.07	5.01	5.01	4.99	5.04	5.01	5.08	6.18	5.16
	T/B(30년)	6.39	6.93	7.00	6.58	6.64	6.36	6.74	6.79	6.80	7.10	7.06
일본	재할인율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0.50
	프라임레이트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독일	재할인율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프라임레이트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유로금리 (3개월)	유로달러	5.35	5.52	5.50	5.52	5.50	5.50	5.56	5.56	5.50	5.81	5.84
	유로엔	0.67	0.63	0.62	0.53	0.53	0.53	0.53	0.56	0.56	0.58	0.57
	유로마르크	3.35	3.25	3.24	3.19	3.19	3.25	3.13	3.16	3.25	3.25	3.22

주 : 미국과 일본의 프라임레이트는 단기이고 독일은 롬바르트금리임. 월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연합뉴스

- 96년 12월말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11월의 경제지표의 발표 등으로 미국의 장기금리는 하락세를, 단기금리는 시장유동성감소 등으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12월의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경기의 호조세를 보이는 방향으로 발표되자 미 FRB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하였음.
- 97년 1월초 미국의 시장금리는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발표 등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감소하면서 장단기금리가 모두 소폭으로 하락하였음. 이러한 하락세는 채권공급물량의 확대 등으로 1월중에 장단기금리가 모두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하였음. 그러나 미국의 물가안정세가 지속되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장단기금리는 1월말 모두 하락세를 보였음.
- 2월초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와 미 FRB의 금리인상 유보결정 등을 반영, 미국의 시장금리는 장단기금리 모두 하락하였음. 이러한 하락세는 물가안정과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연속적인 발표로 2월 중순까지 이어졌음. 그러나 2월 26일 미 FRB의장의 금융긴축 가능성 시사 및 경기호조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발표 등을 반영하여 2월말 미국의 시장금리는 장단기금리가 모두 상승하였음.

- 2월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시장금리는 그 상승세가 3월까지 이어졌음. 3월초 경기호조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연속적인 발표와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FRB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장단기금리는 모두 상승하였고 이러한 상승세는 3월 중순까지 계속되었음.

FRB은 3월 2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선제적으로 FF(Federal Fund) 목표금리를 0.25%포인트(5.25% → 5.50%)인상하였음. 그러나 3월말에는 FRB의 금리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호조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 등으로 금리의 추가인상설이 확산되어 장기금리는 오름세를 보였음.

- 4월 들어 미국의 장기 금리는 경기호조를 시사하는 경제지표의 발표로 FRB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증대하여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나 단기금리는 주식시장 부진에 따른 투자자들의 단기 정부채 매입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3. 국제 원자재 가격

<표 >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1996				1997			
	1/4	2/4	3/4	4/4	1월	2월	3월	4/11
브렌트유 (현물, 달러/배럴)	18.58	19.49	20.88	23.57	23.28	19.42	18.53	17.38
WTI유 (현물, 달러/배럴)	19.80	20.34	22.42	24.67	24.15	20.30	20.70	19.55
두바이유 (현물, 달러/배럴)	16.5	17.0	19.25	21.33	20.72	17.56	18.17	16.32
로이터상품가격지수	2,133.6	2,057.9	1,925.1	1,860.5	1,945.8	1,950.7	1,967.1	1,958.0
소맥 (시카고, 센트/부셸)	508.9	505.4	445.7	383.8	359.5	373.0	401.8	403.0
옥수수 (시카고, 센트/부셸)	389.9	461.2	365.1	253.3	270.8	296.8	308.3	299.5
동 (런던, 파운드/MT)	2,550.1	2,381.7	2,064.5	2,233.5	2,397.5	2,429.5	2,426.0	2,322.0
알미늄 (런던, 파운드/MT)	1,591.8	1,550.8	1,469.5	1,481.3	1,597.5	1,623.0	1,607.0	1,533.5

주 : 월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조사통계월보”, 무역협회 “일간무역”

1) 원유가격 동향

- WTI 현물유가는 난방유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12월 24일 배럴당 28.10달러로 1991년 걸프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96년 10월부터 상승세를 보인 WTI 현물유가는 유럽 및 미 북동부 지역의 한파로 난방유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이라크의 부분적인 원유 수출 재개에도 불구하고 12월말까지 계속 이어졌음.
- 96년 12월중 계속된 WTI 현물유가의 상승세는 97년 1월초 유럽 및 미국 지역에서의 평년기온 회복으로 난방유 재고부족에 대한 우려가 감소된 가운데 非OPEC산유국의 생산량 증가 전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음. 이러한 하락세는 1월중 계속 되었으나 1월말 미 북동부지역의 기온이 평년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기상예보 등으로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음.
- 2월초 WTI 현물유가는 예상과 달리 온난한 미 북동부 지역의 날씨와 미 석유회사의 2월 4일 미국의 원유재고가 증가하였다는 발표 등으로 1월의 하락세를 유지하였음. 이러한 하락세는 2월중 일부 산유국의 원유공급 차질 등

으로 잠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하였으나 계속되는 온난한 날씨로 수요가 줄어들고 원유재고가 늘어나면서 2월말까지 하락세를 유지하였음.

- 3월초 WTI 현물유가는 계절적으로 원유성수기가 끝나가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OPEC산유국의 생산이 증가하여 하락세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3월 20일에 일어난 미 미시시피강에서의 바지선 충돌사고로 석유선적에 차질이 생기고 미 북동부지역의 이상한파에 따른 난방유 수요의 증가 등으로 2월에 비하여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음.
- WTI 현물유가는 유럽 및 아시아지역 정유공장의 정기 시설보수에 따른 수요 부진과 OPEC 및 이라크의 수출물량 확대, 미국의 온난한 날씨 지속에 따른 재고 증가 등으로 4월 5일에는 97년 들어 최저 수준인 배럴당 19.15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음.

2)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 동향

- 작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소맥, 옥수수 등의 곡물가격의 하락과 칠레의 동 생산과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는 동 등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반영하여 12월말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하였음.
- 아르헨티나의 수확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호주, 유럽국가 등 주요 수출국 간에 수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97년 1월말 소맥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였음.
동 가격은 유럽국가들의 동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재고감소가 예상되어 1월중 상승세를 보였음.
- 1월에 하락세를 보이던 소맥가격은 멕시코, 파키스탄 등의 수요증가와 캐나다의 폭설로 인한 선적 지연 등으로 2월중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미 농무부의 파종면적 감소 예상 발표와 미국, 호주 등 주요 생산국간의 수출경쟁 심화 등으로 등락이 엇갈렸으나 2월중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1월중 상승세를 보였던 동 등 비철금속 가격은 2월중에도 계속되었음. 미국의 주택건설 호조로 동 수요가 늘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국가들의 꾸준한 동 수요와 함께 2월중 동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3월의 소맥가격은 봄밀 재배면적의 감소, 미 중서부지역의 홍수로 겨울밀 수확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봄밀 파종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인도의 대

량구매에 따른 수요확대 등으로 2월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였음.

동 가격은 중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들어 3월초 하락세를 보였으나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재고가 감소한 데다 중국의 매입이 다시 늘어나자 2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음.

- 4월초 소맥 가격은 미국 주요 경작지의 이상 저온 현상으로 겨울밀 수확이 감소하고 봄밀 파종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소폭 상승하였음.

동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재고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를 보임.

제3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1. 최근 경제추이의 판단 및 향후 전망

○ '95년 4/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GDP)이 6%대로 떨어진 이후 '96년 3/4분기 들어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되고 투자와 소비 등 내수신장도 둔화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경제는 '96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수축국면을 경험하고 있음. 더욱이 '96년 1월중 120엔/달러대로 절하된 엔화약세는 '97년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도 "97년 경제운영계획" 등 정부의 거시경제운영방안에 있어 국내수요 부양을 통한 거시정책은 고려되지 않음. 따라서 '95년 4/4분기 이후의 저성장추이가 9분기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은 '96년중 7.1%로 낮아진 데 이어 '97년에는 5.1%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상반기중 미국경제의 고성장과 금리상승기조로의 전환 그리고 완만한 일본경기 회복세 등으로 엔화약세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주요수출품목의 가격회복이 더딘 반면 수출보다 수입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97년에도 경상수지적자가 220억불을 상회하고 물가압력이 높아지는 등 성장둔화와 함께 대내외불균형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전반적인 세계경제여건이 성장면에서나 교역, 금융면에서 안정적인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4월이후 원화절하가 '96년 12월 이후 큰폭으로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엔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수출주종품목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97년 1/4분기중에도 전년동기비 5.5%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수출의 현저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96년 12월 이후 다소 빠른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절하폭이 수출가격경쟁력을 보전할만큼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며 절하에 따른 제한적인 수출확대효과도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반면에 설비투자의 둔화와 원화의 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둔화추이를 보임으로써 큰 폭의 대외적자가 예상된다.

- 대외적으로 볼 때, 일부 주력품목(전자,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가격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완만한 가격회복추이를 보이는 반면, 엔화약세와 국내요소가격의 상승은 수출신장세를 제약하고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외에 WTO체제의 본격화와 OECD가입추진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폭의 확대 등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들 요인들은 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와 외자유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국제수지면에서 국내경제운용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내적 요인도 '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높아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증폭, 제조업 신규고용의 감소추이 및 경상수지적자폭의 확대 등 저성장기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께 한보, 삼미그룹 등의 대기업부도사태에 따른 파급영향, 그리고 체제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문제 등의 경제외적 부담요인이 적지 않은 가운데 유통시장의 개방과 수입품에 대한 거부감의 퇴조 등 실질적인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완성소비재의 수입확대 추세, 빠른 구조조정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경기양극화현상과 매출감소와 채산성악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등도 예상되는 과제들임.

○반면 최근 소비자물가는 여러가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화추이를 지속하고 있으며 재정 또한 거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등 거시정책환경은 다소 여유가 있어 앞에서 열거한 정책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유연한 거시경제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9.3종합대책”과 후속 “경쟁력 10%올리기”시책 그리고 “'97년 경제운영계획”에 의하면, 신경제팀의 출범 이후 경제운영을 단기적이고 거시적인 조정보다는 중장기적이고 미시적인 조정수단에 의존하기로 함으로써 획기적인 외부환경변화가 없는 한 '95년 4분기 이후의 경기하강국면이 과거 평균경기수축기간인 6분기를 넘어 9분기 이상으로 중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85년 플라자합의이후 국제환율의 변화와 인위적인 주택건설의 확대 그리고 '87년 '6.29선언 이후'의 경제민주화과정에서 국내 임금, 물가, 토지를 비롯한 생산요소 가격변수들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우리경제의 경기자율반등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요약컨대, 향후 우리경제는 본격적인 경기수축국면에서 적정성장률의 달성과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라는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개방과정에서 국내금리와 물가를 선진국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환경조성대책 그리고 경기둔화과정 속에서 경기양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나가야 하는 등 장단기 정책운영상의 부담요인을 안고 있음.

2. 향후 경제운영방향

○ '93년 1월을 저점으로 한 경기확장기간동안 엔고와 세계경제의 호전을 배경으로 균형재정과 안정적 통화공급 그리고 원화절상을 기조로 한 거시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경기과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5% 수준에서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음. 그러나 '95년 이후 엔화가치의 약세전환과 설비투자를 비롯한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GDP성장률이 '95년 하반기 8.1%, '96년 하반기 6.9%에 이어 '97년에는 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경기수축국면은 경기순환적 요인 못지않게 구조적 경쟁력약화요인과 정치사회적인 불안정요인이 가세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단기적인 거시정책수단의 선택을 제약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거시경제운영은 무엇보다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생적인 경기반등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지나친 경기수축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심이 요구됨.

- 저성장국면에서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적지 않은 물가압력이 상존하는 등 취약한 경제여건에서 중장기적인 경제체질강화를 목표로 한 축소균형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운영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경기와 성장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음.

- 반면에 경기수축기의 장기화국면은 한계기업과 사양산업을 보다 쉽게 노출시킴으로써 경기확장기중 지연되어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거시경제운영의 중점은 '87년 이후 형성된 비효율과 가격체계의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대내외균형을 회복하는데에 두어야 할 것임. 단기적으로 '97년중 예상되는 경상수지적자의 축소와 과도한 경기수축의 경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과 경제효율제고를 통하여 잠재성장률수준의 성장속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1) 경상수지적자의 축소

○ 달러화강세와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에 따라 890원/\$대에 있는 대미달러환율은 인위적으로 원화의 절하압력을 낮추기 보다는 경상거래용 외환수급사정을 안정적으로 반영하도록 시장여건조성에 힘씀으로써 통화정책부담을 완화하고 환율변화로 인한 가격경쟁력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한 지난 '86년 이후 10년('85~'95)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5% 내외 그리고 국내 소비자물가는 5.8%가 상승함으로써 구매력에 기초한 원/달러 환율은 매년 약 2% 이상의 절하압력이 누적되어 왔으나 현재 환율수준은 '85년 말 당시 환율 890원/\$과 같은 수준임.
-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결제용 외환수요의 증대로 인한 원화가치의 절하압력을 국내 자금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외화공급을 통해 완화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시중자금환수는 시중자금가용성의 축소와 실세금리의 하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상수지개선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는 외환의 투기적 수요에 의한 원화가치의 변동폭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무역적자추세와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여건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은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중앙은행의 신인도 저하와 외환시장개입 능력을 의심받게 됨으로써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가중 우려.

	1996년					1997년		
	6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외환보유고(억불)	365.6	328.4	322.3	323.2	332.4	310.0	298.0	292

- 한편 대만은 850억불, 싱가포르 720억불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IMF의 권장수준은 3개월치의 수입대전상당액으로 우리의 경우 이에 미달하고 있음.

2) 제도적 준비를 통한 유연한 구조조정 여건 조성

경직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제효율의 제고

○ 높은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증가과정에서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일인당 국민소득에 비하여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반면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는 확대됨으로써 산업의 균형성장이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어려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고학력, 고령 및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의 시행과 함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나가는 일이 시급함.

- 일시해고(layoff)가 어려운 현실에서 노동관련법상 노동시장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는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가까운 국내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음

므로 관련규제들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 요구됨.

- 임금상승률과 함께 임금수준의 안정이 경쟁력제고에 필수적임.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범위 내에서의 임금책정과 같은 지불능력관점도 중요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한 사회보장부담, 낮은 실업률하에서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수를 크게 하는 낮은 경제활동인구비율, 짧은 압축성장과정에서 아직 낮은 자가보유율 및 임대주택보급 그리고 과다한 사교육비의 지출 등 생계비의 안정 관점에서의 대책이 병행될 때 중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됨.

퇴출규제의 정비를 통한 구조조정의 원활화

○ 미국의 '연방파산법' 이나 일본의 '회사갱생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기업의 부도를 포함한 기업퇴출관련제도의 정비와 엄격한 준칙의 집행을 통한 구조조정의 촉진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 즉, 부실기업과 구조적 사양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을 유도하되, 부도기업은 제3자인수 등이 M&A활성화에 의해 경쟁적 환경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가 가능할 것임.

- 퇴출기업에 대한 퇴출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퇴출에 따른 매몰비용분담과 재건 또는 구제기업에 관한 금융세제상 지원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엄격한 준칙의 집행을 통해 관행을 형성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촉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3) 금리안정을 위한 여건조성

○ 높은 국내금리는 그 자체로 산업의 높은 비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본자유화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내외금리차로 인한 거시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불안과 성장둔화과정에서의 내외금리차 축소를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자금가용성확대와 시중실세금리의 안정을 위한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이 요구됨.

- 특히 '96년 상반기 이후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투자수요둔화와 생산자물가가 안정추이를 보이는 시기에는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이 수요압력을 증대시켜 물가를 자극하기 보다는 유동성효과에 의한 시중실세금리의 하락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기수축기에 추가적인 통화긴축은 실세금리의 재상승과 기업투자마인드의 급

격한 위축 및 기업부도의 증가 등 실물부문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최근 통화공급은 성장률 하락과 기업의 자금수요둔화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신탁계정의 총통화(M2) 편입(M2의 1.4%로 추산)을 고려하면 통화량의 확대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나 자금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금리가 안정추세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97년중의 통화공급도 자금시장교란으로 인한 자금가수요의 발생에 유의하는 등 시중실세금리의 안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재정의 자동적 경기조절기능 활용

○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흑자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임. 현시점에서 재정흑자기조의 견지는 경상수지적자 그리고 해외차입에 의한 경상적자보전이라는 악순환을 막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되나 경기연착륙과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정부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정부부문의 SOC투자축소와 같은 무리한 긴축은 고비용요인의 장기화와 추가적인 경기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경기하강국면의 심화로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96년과 '97년도 예산(13.4% 증가)은 당초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집행시, 효율적 세출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상의 세입이나 추경예산(경기조절 또는 사회간접자본투자확충 목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조세행정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재정고유의 경기자동조절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예상보다 명목성장률이 하락하는 경기국면에서 예상성장률에 기초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행정력의 무리한 사용 그리고 재정긴축을 위한 기편성된 세출예산의 집행감소는 현재와 같은 경기수축국면과 심리적 위축이 겹친 상황에서 과도한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재정규모 증가율 추이

(단위: %)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재정규모 증가율	16.8	15.1	14.8	13.7
(일반회계)	(15.6)	(16.7)	(16.2)	(12.8)
(장기융자)	(36.4)	(-6.7)	(-7.5)	(33.9)

주: 예산편성 기준

○ 현재 재정규모는 경직적 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부담을 안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경기수준을 조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고비용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고유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세출예산의 구조

(단위: 억원, %)

	1996년 예산	1997년 예산(안)	증가액	증가율
경직성 경비	334,556	371,612	37,056	11.1
· 인건비	78,857	85,678	6,821	8.6
· 방위비	127,360	142,705	15,345	12.0
· 교부금	120,852	132,429	11,577	9.6
· 예비비	7,487	10,800	3,313	44.3
사업비	295,110	344,408	49,338	16.7
계	629,666	716,020	86,354	13.7

주: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임.

- '96년중 경기수축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은 목표대비 0.1% 미달에 그쳤음. 총국세수입목표 65.0222조원 대비 실적은 64.9588조원이었음.

	1992	1993	1994	1995	1996(잠정)
조세부담률(대GNP)	18.7	18.9	19.9	20.7	21.0
조세부담률(대GDP)	18.6	18.8	19.8	20.5	20.8
국세부담률(대GNP)	14.7	14.8	15.6	16.3	16.7
국세부담률(대GDP)	14.6	14.7	15.5	16.2	16.6
인당조세(천원)	1,023	1,141	1,361	1,591	1,801
인당국세(천원)	807	891	1,063	1,256	1,426

*재경원

5) 준조세부담의 완화

○ 규제의 정비 및 완화를 통하여, GNP의 2.7%에 달하는 직간접적 준조세부담성격의 각종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61년 도입 이래 15개 정부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은 모두 76종에 달하고 있으며 '97년 조성액은 103.58조원으로 정부예산(71.4조원)의 1.45배에 달함. 이들 기금은 장관이 관장하면서 국회예결위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지는 36개 공공기금과 관리공단이사장이 정부와 협의하에 운영하는 40개 기타기금으로 구성되며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4년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경제부총리를 위원장 8개 부처장관과 한은총재를 위원)는 이제까지 서면동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기금부조리실태 및 방지대책'보고서 96.6).

최근의 형태별 소비증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1997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민간소비	7.6	8.3	7.7	7.4	6.2	6.5	6.9	-	-
내구재	11.8	11.6	8.0	10.5	4.8	6.0	7.3	-	-
준내구재	6.1	9.2	6.7	6.7	6.6	6.8	6.7	-	-
비내구재	5.2	6.1	5.3	3.6	4.1	3.8	4.2	-	-
서비스	8.7	9.0	9.3	8.6	7.5	7.6	8.3	-	-
정부소비	4.2	1.0	6.8	5.9	6.3	9.1	7.1	-	-

자료: 한국은행

소비관련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1997	
	연간	연간	1월	2월	3/4	4/4	연간	1월	2월
도소매판매액	8.0	7.8	5.3	11.5	6.4	6.0	7.0	1.4	3.3
도 매	9.8	6.9	7.0	7.6	4.9	4.4	5.2	0.7	2.4
소 매	6.1	8.6	3.7	15.6	8.6	7.7	8.9	2.0	4.3
내수용소비재출하	9.2	7.4	6.2	6.3	1.9	5.9	5.2	-3.2	-0.9
내 구 재	12.3	10.7	8.5	5.8	0.9	8.8	6.8	-12.5	7.1
비내구재	7.7	5.7	4.9	6.5	2.4	4.2	4.2	1.9	-4.9

자료: 통계청

최근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997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설비투자	15.9	5.2	9.3	13.7	8.2	-	-
기 계 류	22.6	4.6	14.5	12.4	9.8	-	-
운수장비	2.4	5.6	-3.2	17.0	4.3	-	-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 관련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1997	
	연간	연간	1월	2월	연간	12월	1월	2월
국내기계수주액	26.9	15.8	34.3	6.0	14.3	0.6	-27.5	-5.6
공공	51.6	3.3	15.8	87.6	16.0	-19.5	-74.2	2.1
민간	21.5	19.2	8.8	-4.1	13.9	5.3	-3.9	-7.5
기계류수입액	37.6	27.0	45.1	12.4	12.2	-2.7	2.9	-0.3

자료: 통계청

최근 건설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1997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건설투자	4.5	8.7	11.2	5.6	7.1	2.8	6.3	-	-
건물건설	2.2	10.7	6.4	-1.3	0.4	-3.7	0.2	-	-
기타건설	8.1	5.8	23.8	17.1	19.4	10.0	16.1	-	-

자료: 한국은행

건설투자 관련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1997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내건설수주	18.5	21.2	47.4	11.6	17.5	20.5	21.4	2.7	39.9
공공	17.0	17.6	173.5	46.8	10.6	39.4	44.7	8.0	32.7
민간부문	19.4	23.2	12.2	-0.8	22.3	7.6	9.1	-1.5	46.3
건축허가면적	-1.3	1.0	-7.4	-16.7	27.6	-5.5	-3.0	8.3	-12.7
주거용	-8.5	-1.2	-8.3	-9.3	20.6	-5.9	-2.5	17.2	-16.0
상업용	11.0	3.8	-13.3	-24.3	36.4	-5.4	-5.9	-2.1	-9.6
공업용	16.8	3.3	-10.2	-29.1	12.8	18.4	-13.2	-29.7	-39.3

자료: 통계청

경기지수 동향

(단위: 전월비(%))

	1996						1997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경기선행지수	0.6	0.0	1.1	0.2	0.8	0.1	0.0	0.0
경기동행지수	0.2	0.1	0.7	0.8	0.3	0.6	-0.7	-0.1
(순환변동치)	101.9	101.5	101.7	102.0	101.9	102.0	100.9	100.3
경기후행지수	0.4	0.4	0.7	0.3	0.1	-0.1	0.8	-0.3

자료: 통계청

고용 및 임금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997	
	4/4	연간	3/4	4/4	연간	1월	2월
경제활동참가율	62.1	62.0	62.7	62.5	62.0	60.6	60.7
실업률	1.8	2.0	1.8	2.0	2.0	2.4	2.6
전산업임금상승률	10.2	11.2	12.7	11.1	11.9	13.4	-
(제조업)	(8.3)	(9.9)	(12.0)	11.4	12.2	12.4	-

주: 실업률은 계정조정수치임.

물가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1996				1997					
	2월		3월		1월		2월		3월	
	전월비	동월비	전월비	동월비	전월비	동월비	전월비	동월비	전월비	동월비
생산자물가	0.6	3.7	-0.3	2.2	1.0	3.6	0.6	3.6	-0.2	3.8
소비자물가	0.4	5.1	0.8	4.5	0.8	4.7	0.6	4.9	0.4	4.5
수출물가	-0.4	-1.1	-0.5	-2.6	0.9	3.7	1.9	6.1	0.6	7.3
수입물가	-1.4	-2.8	-0.7	-4.4	1.3	5.4	0.3	7.2	-0.7	7.3

주 : 동월비는 전년도 동(同)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성장률과 재정규모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예산)	1997(예산)
경상 GNP	14.5	14.8	12.3	11.3
일반회계	15.6	16.7	16.2	12.4
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	16.8	15.1	14.8	13.4
통합재정 ¹⁾ 세출 및 순융자	19.0	18.6	16.2	16.7
총재정규모(중앙 및 지방)	31.4	19.8	9.5	7.9

주 : 1) 중앙정부+비금융공기업

자료 : 한국은행, 재정경제원

최근 수출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1~2월
전체수출		318.3 (21.5)	294.5 (3.5)	301.1 (-7.5)	334 (2.1)	1,247.9 (3.7)	90.6 (-8.7)	94.1 (-4.8)	184.6 (-6.8)
품목별	중화학	225.0 (25.3)	223.7 (0.1)	196.0 (-14.0)	230.1 (-1.6)	874.8 (0.9)	59.0 (-16.7)	63.0 (-9.7)	122.0 (-13.2)
	경공업	73.8 (12.6)	87.3 (9.7)	80.7 (3.4)	77.8 (7.0)	319.6 (7.5)	23.2 (3.5)	22.8 (-1.3)	46.0 (1.1)
지역별	대선진국	152.4 (18.0)	145.3 (-8.7)	131.9 (-17.6)	142.4 (-19.1)	572 (-8.0)	38.9 (-20.7)	40.2 (-15.8)	79.1 (-18.3)
	대개도국	165.9 (25.0)	189.2 (16.9)	168.1 (4.6)	191.8 (11.6)	715 (14.1)	51.6 (3.0)	53.9 (5.4)	105.5 (4.2)

자료: 통상산업부

최근 수입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1~2월
전체수입		356.8 (16.8)	370.6 (6.7)	371.8 (7.7)	404.1 (14.4)	1,503.2 (11.3)	125.2 (3.9)	114.9 (0.1)	240.2 (2.1)
품목별	원자재	185.1 (19.0)	187.6 (9.4)	174.6 (3.5)	197.6 (7.9)	744.9 (10.2)	67.9 (2.1)	63.6 (2.1)	131.5 (4.0)
	자본재	133.6 (12.0)	140.5 (0.2)	152.5 (10.1)	161 (18.5)	587.6 (10.0)	44.0 (0.5)	39.9 (-2.5)	83.3 (-1.0)
	소비재	38.1 (25.1)	42.5 (18.9)	44.7 (17.8)	45.4 (21.3)	170.7 (21.2)	13.4 (6.1)	12.0 (-1.5)	25.3 (2.4)
지역별	대선진국	233.3 (13.9)	246.6 (3.9)	247.8 (5.0)	258.8 (9.0)	986.5 (7.8)	73.8 (-4.7)	67.7 (-5.2)	141.4 (-5.0)
	대개도국	123.5 (23.0)	124.1 (12.6)	123.9 (14.2)	145.1 (24.2)	516.6 (18.5)	51.5 (19.6)	47.3 (8.9)	98.7 (14.2)

자료: 통상산업부

최근 국제수지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1~2월
경상수지	-46.4	-52.4	-74.8	-63.6	-237.1	-31.4	-24.5	-55.9
무역수지	-25.5	-30.9	-56.0	-40.4	-152.7	-23.3	-17.7	-41.0
수출증가율(%)	20.5	3.9	-6.5	1.5	4.1	-4.4	-4.3	-4.5
수입증가율(%)	18.7	7.8	8.4	14.7	12.2	6.5	0.6	3.6
무역외수지	-19.2	-18.9	-17.2	-21.3	-76.8	-7.3	-5.9	-13.2
이전수지	-1.6	-2.6	-1.5	-1.8	-7.5	-0.9	-0.8	-1.7
자본수지	46.3	74.6	1.1	50.2	172.2	7.1	11.7	18.8

원화 환율 추이

	1994	1995	1996		1997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원/달러	788.70 (2.46)	774.70 (1.81)	828.70 (-6.52)	844.20 (-8.23)	861.30 (-1.99)	863.90 (-2.3)	897.10 (-6.3)
원/100엔	790.68 (-8.62)	749.23 (5.53)	727.79 (2.95)	726.51 (3.13)	705.69 (2.95)	715.30 (-1.5)	723.18 (-0.5)

주: ()안은 전년동기비 절상 또는 절하(-)율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부문별 총통화(M2)지표 추이

(단위:십억원)

	1995	1996	1997			
			1월	2월	3월	1/4
정부부문	-4,055	-3,375	-5,708	3,043	-2,125	-4,790
민간부문	30,065	41,243	4,793	3,220	3,349	11,362
해외부문	2,480	-3,531	-2,146	-1,491	-439	-4,075
기타부문	-7,723	-9,995	228	645	360	1,233
총통화(M2)	20,767	24,343	-2,833	5,418	645	3,730

주 : 말잔증감액기준

자료 : 한국은행

최근의 총통화 동향

(단위:십억원, %)

	1996		1997			
	3/4	4/4	1월	2월	3월	1/4
총통화(M2)평균액	161,830	170,244	176,734	180,716	181,680	179,710
총통화증가율(평균)	17.3	18.2	18.1	19.6	20.5	19.4
M2+CD증가율(평균)	16.7	16.5	17.1	17.8	17.5	17.58

자료 : 한국은행

기업직접금융조달

(단위: 억원)

	1996					1997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1-2월
주식발행	9,698	9,830	16,379	14,588	50,451	2,078	1,072	3,150
회사채발행	47,784	34,146	24,452	47,422	152,553	12,598	6,203	18,801
전체	57,482	43,976	40,831	62,010	203,004	14,676	7,275	21,957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자금사정동향

(단위 : %)

	1996					1997			
	1/4말	2/4말	3/4말	4/4말	연말	1월말	2월말	3월말	
콜금리	9.37	13.49	15.93	12.20	12.20	11.67	12.14	12.97	
회사채유통수익률	11.44	11.70	12.40	12.45	12.45	12.00	12.40	12.50	
CD유통수익률	11.35	12.65	14.40	13.35	13.35	12.35	12.20	13.45	
어음부도율	전국	0.16	0.12	0.12	0.14	0.14	0.21	0.24	-
	서울	0.10	0.07	0.07	0.08	0.08	0.16	0.18	-

주 : 1) 콜금리 : 1日物 기준
 2) 회사채유통수익률 : 3年滿期 保證附社債 기준
 3) CD유통수익률 : 91日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부 록

경제정책정보

4/24 재정경제원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효율적처리와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추진
 -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금융개혁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

4/21 재정경제원

- '97 관세율 개편방향
 - 관세율체계의 정비, 균등관세율구조의 미시적 조정, 정보화 추세에 따른 관세율 변동결과를 기본세율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4/18 중소기업청

- 생산기반기술 업종에 대한 ISO 인증획득 지원
 - 중소기업청이 '97.4월부터 6개월간 주물, 도금, 열처리 등 생산기반기술분야업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의 개선, 공정의 합리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뒷받침 하기 위해 실시하는 ISO 9000 인증획득을 위한 지원계획 주요내용

4/17 통상산업부

- 통상산업부 우수통상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통상분야 사무관 특채
 - 통상산업부가 전문화.다양화되어가는 대외통상분야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표한 통상분야 전문인력 특채계획 공고내용

4/16 중소기업청

- 중소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시험설비 확충
 - 중소기업청이 인력과 시설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등 산하 민간 7개민간시험연구원에 대한 고기능.조정밀 시험.분석.평가 설비 등 확충계획 주요내용

4/16 재정경제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
 - 기업의 활력회복과 합리화 투자를 통한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 97.12.31 까지 한시적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노후시설개체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4/9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지원에 CALS도입이 본격화
 - 국립기술품질원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체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CALS체제 주요내용

3/31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종합대책
 -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마련한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종합대책 주요내용

3/31 중소기업청

○중소유통업지원제도

- 중소기업청이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와 절차를 보다 알기쉽게 요약.정리하여 발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주요내용

3/28 재정경제원

○ 생명보험 예정위험을 자유화(3단계 가격자유화)

- 97.4.1 부터 시행할 예정인 생명보험 예정위험을 및 이자율 배당 3단계 가격자유화방안

3/26 재정경제원

○ 일반손해보험 4단계(최종) 가격자유화

- 보험상품가격자유화계획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보험업계의 부당리베이트 재고방지, 가격요율제 운용에 따른 보험사간 경쟁촉진 등을 유발하게 위해 97.4.1 이후 체결계약부터 적용되는 일반손해보험 4단계 가격자유화 주용내용

3/27 재정경제원

○ 화재.특종보험에 대한 재보험자유화(3단계) 시행

- 보험시장 개방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에 따라 97.4.1 부터 시행하는 화재보험에 대한 재보험 자유화 방안

3/2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방지에 최선 : 중소기업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개최

- '97.3.24 개최된 중소기업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3/12 중소기업청

○한보그룹 부도관련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 중소기업청이 제183회 임시국회 통상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보그룹 부도관련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주요내용

3/8 중소기업청

○중소유통업체의 POS설치 확대방안

- 최근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과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자본을 바탕으로한 유통시장 진출로 중소기업체들의 상권이 크게 위축됨에 따른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설치확대방안 주요내용

2/28 재정경제원

○ 전자지갑 표준개발 완료 및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추진

- 97.2.27 금융결제원 및 업계전문가들이 그동안 추진하여온 전자지갑 표준 개발 완료에 따라 추진키로 한 금융IC카드 공동이용시스템 구축계획 주용내용

2/14 재정경제원

○ 증권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

- 97.2.13 개최된 금융산업 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증권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2/13 재정경제원

○ 토지초과이득세법 새행규칙개정(안)

- 96.12.31 토지초과 이득세법새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행렬에서 위임된 유희토지 판정기준 등을 정하기위하여 마련한 개선내용

2/12 재정경제원

○ 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행규칙 개정(안)

- 96.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새행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 범위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확대,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하는 동법시행규칙 개정(안)

2/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 D/B 구축사업 추진

-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중소기업 창업예비자에게 창업단계부터 창업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창업 및 지원 D.B 구축사업 추진 내역

2/10 재정경제원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97.1.13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시행령 개정령안

2/9 재정경제원

○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향

- 97.2.18 금융발전심의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할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2/6 재정경제원

○ 법인세법새행규칙 개정(안)

- 증권회사 및 투신사 접대비한도 축소, 주식매입선택권행사에 따른 법인의 손비처리,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비인정 등을 내용으로하는 개정(안)

2/4 중소기업청

○ 유망중소기업 지원강화

- 중소기업청이 유망중소기업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97.2월부터 시행할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및 수출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마련한 유망중소기업 지원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2/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동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1/30 통상산업부

○ '97년도 제1차 안전점검대책회의

- '97.1.29 통상산업부에서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에너지 및 산업분야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상황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을 위한 가스, 전기, 석유, 광산 등 분야별 '97년도 안전관리대책

1/28 재정경제원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새 행정 개정
 - 96.12.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위해 마련한 동법률의 시행개정(안)

1/14 재정경제원

-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 개선방향
 - 정부화 증권관계기관이 실물 유가증권의 이동에 따른 사회적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1/3 재정경제원

- 조달시장개장에 대비한 중부조달 관련 회계예규 제.개정 시행
 - 97.1.1부터 시행하는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정비해 놓은 정부 조달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제입찰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기위해 제.개정한 회계예규 주요내용

	GDP		1					
			GNP					
	(%)		US \$	(%)				
1990	9.5	9.7	5,883	10.1	10.7	25.9	18.8	31.2
1991	9.1	9.1	6,757	9.3	9.5	12.6	12.1	13.0
1992	5.1	5.1	6,988	6.8	6.6	-0.8	-1.1	-0.6
1993	5.8	5.0	7,484	5.3	5.7	5.2	-0.1	8.9
1994	8.6	10.4	8,467	7.0	7.6	11.8	23.6	4.5
1995	8.9	10.8	10,037	7.2	8.3	11.7	15.9	8.7
1996	7.1	7.4	10,548	6.9	6.9	7.1	8.2	6.3
1996.3	7.8	7.7	-	7.5	7.7	8.2	4.9	11.2
6	6.9	6.5	-	7.2	7.4	5.2	4.6	5.6
9	6.6	7.0	-	6.2	6.2	8.0	9.3	7.1
12	7.2	8.4	-	6.9	6.5	7.2	13.7	2.8
1997.1	-	-	-	-	-	-	-	-
2	-	-	-	-	-	-	-	-

	(FOB)		L/C	(CIF)		I/L				1)	/
	(%)			(%)							
1990	65,016	4.2	4.4	69,844	13.6	21.8	-2,004	-2,179	-274	14,822	716.4
1991	71,807	10.5	5.2	81,525	16.7	9.4	-6,980	-8,728	-3,741	13,733	760.8
1992	76,632	6.6	4.7	81,775	0.3	-10.3	-2,146	-4,529	4,898	17,154	788.4
1993	82,236	7.3	6.2	83,800	2.5	8.5	1,860	385	6,542	20,262	808.1
1994	96,013	16.8	15.7	102,348	22.1	40.3	-3,145	-4,531	2,822	25,673	788.7
1995	125,058	30.3	13.4	135,119	32.0	33.1	-4,747	-8,948	3,034	32,712	774.7
1996	129,715	3.7	-4.4	150,339	11.3	9.0	15,278	-23,716	-5,737	33,237	844.2
1996.7	9,897	-5.6	3.8	12,792	12.6	24.2	-1,769	-2,347	-2,538	35,062	813.3
8	9,687	-8.7	-11.0	12,958	12.5	5.6	-2,906	-3,618	-2,172	33,557	819.4
9	9,992	-8.9	-3.8	11,404	-1.8	1.0	-920	-1,512	-1,053	32,087	821.2
10	11,848	2.8	-1.0	13,544	15.5	15.7	-1,828	-2,524	-1,169	32,229	831.3
11	11,399	-0.6	-3.4	13,361	12.5	-7.9	-1,262	-1,946	-132	32,317	828.7
12	12,220	-3.9	-6.9	13,597	15.2	14.2	-949	-1,888	85	33,237	844.2
1997.1	9,122	-8.1	0.8	12,515	3.9	-	-2326	-3143	-1918	30,966	861.3
2	9,399	-4.9	-10.1	11,499	0.1	-	-1772	-2448	-2,030	29,760	863.9

: 가

1)

가, ,

	가 2)				3)			4)	5)
					M1	M2			
	(%)	(%)			(%)				
1990	4.2(7.2)	8.6(9.4)	2.4	20.2	18.1	21.2	7.0	10.0	16.5
1991	4.7(1.9)	9.3(9.3)	2.3	16.9	16.1	18.6	7.0	10.0	18.9
1992	2.2(1.6)	6.2(4.5)	2.4	15.7	32.3	18.4	7.0	10.0	16.2
1993	1.5(2.0)	4.8(5.8)	2.8	10.9	22.1	18.6	5.0	8.5	12.6
1994	2.8(3.9)	6.2(5.6)	2.4	15.5	11.9	15.6	5.0	8.5-10.0	12.9
1995	4.7(3.4)	4.5(4.7)	2.0	9.9	11.6	15.5	5.0	7.5-10.0	13.8
1996	2.7	5.0	2.0	-	9.3	16.2	5.0	7.5-9.0	11.9
1996.6	1.6	5.5	1.9	9.7	9.8	16.2	5.0	7.5-9.0	11.6
7	2.3	5.6	1.8	14.1	9.2	17.1	5.0	7.5-9.0	11.9
8	2.3	5.3	1.9	6.0	8.9	17.4	5.0	7.5-9.0	12.3
9	2.3	4.7	1.8	16.0	9.2	17.4	5.0	7.5-9.0	12.2
10	3.3	5.1	1.8	12.1	9.6	18.8	5.0	7.5-9.0	12.1
11	3.8	4.8	2.0	12.7	6.1	18.2	5.0	7.5-9.0	12.2
12	3.5	4.5	2.3	10.2	5.8	17.8	5.0	7.5-9.0	12.6
1997.1	3.6	4.7	2.6	-	5.5	18.1	5.0	7.5-9.0	12.2
2	3.6	4.9	-	-	5.9	19.6	5.0	7.5-9.0	12.2

: 2) () 12

3)

4) 1 , 1988 12 5 1 2

5)

	가			6)	7)	8)		가		
	(%)									
1990	8.9	2.6	10.5	15.2	38.8	20.3	55.8	31.4	17.0	49.3
1991	9.7	1.5	7.8	11.4	2.2	20.0	13.9	-9.7	6.7	-16.7
1992	5.9	-1.4	5.5	5.2	-5.2	-5.2	6.4	-10.0	-12.4	-7.4
1993	4.2	-0.6	6.4	4.0	12.1	-5.7	19.3	24.5	15.2	26.7
1994	11.0	4.4	6.1	9.2	26.9	37.6	18.5	-1.3	16.8	-8.5
1995	12.1	-0.4	8.6	7.4	15.8	27.0	21.2	1.0	3.3	-1.2
1996	8.4	-0.8	8.9	5.2	14.3	12.2	22.7	-3.0	-13.2	-2.6
1996.7	4.6	0.7	9.5	5.0	-0.7	22.0	-13.1	46.1	22.9	33.1
8	1.4	1.2	7.7	0.4	19.5	21.4	63.7	-4.6	-10.0	-14.2
9	0.1	-1.6	8.8	0.4	10.0	4.2	12.9	43.4	30.9	44.4
10	2.4	1.1	9.8	6.2	15.1	11.7	-16.8	0.0	2.0	-2.2
11	-0.1	-0.7	8.3	6.7	29.8	13.6	48.5	6.4	-11.9	9.9
12	-0.5	-2.4	5.0	4.9	0.6	2.4	25.6	-16.0	-41.0	-16.2
1997.1	-2.0	-6.0	2.0	-3.2	-27.5	0.3	2.7	8.3	-29.7	17.2
2	-	-	-	-0.9	-5.6		39.9	-12.7	-39.3	-16.0

: 6)

7)

8)